

장성군, 5년 연속 지자체 일자리대상

전국 243개 자치단체 정책 평가
 목표공시제 부문 우수상 수상
 장성형 일자리 기반 조성 호평

장성군이 전국 지자체 대상 일자리대상을 잇따라 수상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장성군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 종합 평가다. 우수 자치단체 격려 및 일자리 시책 공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방고용노동지청의 1차 평가와 고용노동부 본부 2차 평가 등을 거쳐

수상을 결정한다. 장성군은 2020년 우수상, 2021년 특별상, 2022-2023년 우수상에 이어 올해 우수상을 받으며 '5년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갔다. 이번 평가에서는 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 고용 거버넌스 운영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세부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성과가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장성형 미래 일자리 산업기반 조성'이 이목을 끌었다. 장성군은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유치 확정 ▲더본의식산업개발원 유치 ▲지방산업단지 개발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 등 '인프라·기업·인력' 3박자를 갖춘 장성형 미래 일자리 산업기반 조성 투자에 주력해, 미래 일자리 창출 원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업 부문에서는 ▲장성로컬푸드 협단지매장 성

공적 운영 ▲온라인 쇼핑몰 '장성몰' 운영 ▲외국인 근로자 인력풀 구축 ▲스마트농업 발전 기반 조성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운영으로 일류 농업을 선도하는 한편, 청년 농업인 육성과 귀농·귀촌 맞춤형 자생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에도 힘썼다. 청년들을 위한 자립 및 주거 지원, 장기근속 유도, 맞춤형 교육, 취·창업 지원도 추진했다. 특히, 청년 지원 종합공간 '청년센터' 건립 추진으로 청년 구직 활동과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군민과 군, 기업, 기관의 협력으로 5년 연속 수상이라는 값진 금자탑을 쌓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특·장점을 반영한 군민 중심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구복규(왼쪽) 화순군수와 임기철 GIST 총장은 지난 8일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첨단 바이오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GIST, 생명과학 인재양성 업무협약

첨단 바이오 산업 유치 등 협력

화순군과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첨단 바이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화순군에 따르면 구복규 화순군수와 임기철 GIST 총장은 지난 8일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첨단 바이오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첨단 바이오 분야 특화산업 유치 등을 위한 교육과 기술협력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화순군 교육 발전·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 협력,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정부 4차 산업 관련 연계사업 발굴 공동사업 공동 협력, GIST 기술경영 아카데미(GT MBA) 교육과정 개설 협력

등도 추진한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GIST가 보유한 새로운 기술과 축적된 지식, 우수한 연구시설 등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양 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한다면 미래 첨단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의 미래인재 양성에 큰 성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임기철 총장은 "GIST는 단순히 과학기술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디지털 산업경제를 어떻게 이끌 수 있는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GIST만의 인공지능 교육 시스템과 우수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해 화순군이 생명과학 분야 국가첨단 전략산업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쌀 누룩을 이용한 발효식품 가공교육 참가자들이 교육 일정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쌀 누룩으로 전통음식 만들어요"...함평군 발효 가공교육 성료

우리음식연구회원 24명 7회 교육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쌀 누룩을 이용한 발효 식품을 가공·개발하고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가공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함평군은 함평군우리음식연구회원 24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7일까지 총 7회에 걸친

쌀 누룩 활용 발효가공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통음식의 중요성을 알리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쌀 누룩을 활용한 소금누룩, 미(米)거트, 누룩식초, 누룩된장 만들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쌀 누룩을 활용해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신기하고 새로

운 경험이었으며 발효식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뜻깊은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문정모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통해 전통 식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전문가를 육성하고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 개발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강진군, 비닐하우스 설치 올해 50억원 지원

강진군이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강진군은 비닐하우스가 단위면적당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단기간에 투자비용 회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닐하우스는 비가림으로 병해충을 예방하고 보온으로 계절의 한계를 극복해 농한기 농업인 소득증대가 가능한 농법이다. 하지만 초기 설치비

부담으로 접근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농업인 실정에 맞는 다양한 규모의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에 나섰다. 강진군은 올해 비닐하우스 설치에 5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난방비 절감을 위한 다겹보온커튼과 보광등, 양액배수시설, 원격제어가 가능한 환경제어시스템 사업도 함께 추진해 농업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나주시, 한우농가 사료값 최대 99만원 지원

52마리 이하 사육농가 대상
 나주시 사료값 인상과 산지 가격 하락으로 위기에 내몰린 한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 나주시는 국제 곡물가 상승 여파로 사료값 상승세가 장기화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한우 사육농가에 배합사료, TMR·TMF사료비 인상 차액

을 한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료비 차액분 지급 대상은 지난 6월 4일 축산물 이력제 기준 한우 52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소규모 축산농가다. 전체 1045농가에 5억4400여 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는 나주시 전체 사육 농가 1401곳(5만8347마리)의 75%에 해당한다. 사료값 인상 차액은 농가당 30두 이내로 두당 3만3000원씩 최대 99만원을 올해 7월 이후 발생한

사료 구입 건부터 지원한다. 나주시는 이달 말까지 대상 농가에게 사업 신청서 등 서류를 접수받아 9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나주시는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인 한우 사육 기반 조성을 위해 국내산 조사료 제조를 비롯해 운송비 지원 등 다양한 한우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사료값이 급등하고 인플레이션 가속화로 농가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며 "이번 사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담양군, 민박 활성화로 생활인구 유입 박차

담양군이 농어촌 민박 활성화를 통한 생활 인구 유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담양군은 지난해 1500만명의 관광객 방문에 힘입어 코로나 이후 활기를 되찾고 있는 농어촌 민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신규 관광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양군 농어촌 민박 누리집을 개설해 한옥형, 수영장형, 반려동물 가능 민박 등 용도별과 죽녹

원, 메타프로방스, 창평솔로시티 등 관광지별로 구분해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맞춤형 광고를 통해 담양군 농어촌 민박 누리집의 검색 유입량을 높이고 있다. 또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화재 안전 점검과 물놀이시설 점검을 추진하고 서비스 안전 교육 이수 장려, 오래된 시설 개보수 및 소방 안전시설 지원 등 시설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4년 8월호

2024년 7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레마마을, 지역을 살린다

찾고 싶은 이유가 있다, 인기 테마마을의 매력
 - 문화 콘텐츠로 활기 충전, 광주·전남의 테마마을들
 - 문학관·도서관으로 문학애가 변신, 인제 만해마을

시간여행 남만바다 힐링섬길

한국의학박사 권영민·광주일보 공동기획 '호남 서화가 열전' ⑤

구름가뭇물 흐르듯...
 조선의 명필 서예가 창암(蒼巖) 이삼만(李三晩)

박물관, 어디까지 가봤니? ⑥
 전 세계 희귀 조개, 고동 한 자리에
 개관 4년째 관람객 12만 명, 신안 세계조개박물관

김동호

다큐 주인공으로 칸 레드카펫 밝은 '영화청년'
 "영화는 내 삶의 일부, 함께 가는 반려"

영화 청간 40주년, 남도투어 ⑧
 숲과 바다가 전해주는 위로
 치유와 힐링의 전남

오동진의 '전지적 시네마 시점'
 미국이 원하는 '미스터 프리저던트'
 답은 영화에 있다

호남의 누정 ⑧-광주 쾌고정수
 지역과 후손 사랑
 큰 그늘, 누정 님은
 600살 왕버들나무

문화 회제
 국창 예술촌 기리고 신인 발굴·육성하는
 제32회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